

한국의 선거와 출신지역: 15~17대 대통령선거 수도권지역 결과를 중심으로

김영태 | 목포대학교

| 논문요약 |

지난 17대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역대 선거에서 박빙이나 한나라당이 열세를 보였던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주의 투표 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15~17대 대선을 사례로 수도권 거주 영호남출신의 투표행태를 분석해 보았다.

이 글의 경험분석결과에 따르면 구·시·군별 영호남출신의 거주비율과 후보득표율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 분석에서도 영호남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이 출신지역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 영남출신 유권자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경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경향이 약화되고,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도권 호남유권자들의 투표행태의 변화는 17대 대선의 경우 호남출신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지만, 15~17대 대선을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선거 이전 시기의 정부평가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경험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번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수도권의 후보지 지성향의 변화는 수도권 호남유권자의 지지성향의 변화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수도권 호남 유권자의 중도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 글을 시작하며

지난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8.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두 번에 걸친 대선패배 이후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의 요인으로 수도권 유권자의 지지성향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16~17대 대선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이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을 상회하는 지역은 울산과 호남을 제외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모두 수도권지역이다. 특히 울산과 호남지역의 경우 득표율 증가는 3~4% 수준에 머물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득표율 증가는 8.2%와 7.7%에 달한다. 물론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이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양자대결 양상을 보였던 16대 대선과 달리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6대 대선과 17대 대선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6대 대선 당시 수도권 전 지역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지역의 변화는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표 1〉 참고).

이러한 수도권 지지성향의 변화와 관련한 흥미로운 지적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으로 기존 선거에서 '민주당 유사 정당후보'를 지지해왔던 수도권 거주 호남 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로 이탈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수도권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지지성향 변화가 호남지역 거주 유권자들에게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호남지역의 지지율은 10%에 이르는 수준으로 16대 대선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17대 대선결과와 관련한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수도권 거주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분석해보고, 이것이 함축하는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기본적으로 지역주의선거를 다루는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주의선거에 관한 연구는 선거

〈표 1〉 16~17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시도별 득표율(%)

	제16대 대통령선거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서울특별시	45.0	51.3	24.5	53.2	11.8
부산광역시	66.7	29.9	13.5	57.9	19.7
대구광역시	77.8	18.7	6.0	69.4	18.1
인천광역시	44.6	49.8	23.8	49.2	15.2
광주광역시	3.6	95.2	79.8	8.6	3.4
대전광역시	39.8	55.1	23.6	36.3	28.9
울산광역시	52.9	35.3	13.6	54.0	17.5
경기도	44.2	50.7	23.6	51.9	13.4
강원도	52.5	41.5	18.9	52.0	17.6
충청북도	42.9	50.4	23.8	41.6	23.4
충청남도	41.2	52.2	21.1	34.3	33.2
전라북도	6.2	91.6	81.6	9.0	3.6
전라남도	4.6	93.4	78.7	9.2	3.6
경상북도	73.5	21.7	6.8	72.6	13.7
경상남도	67.5	27.1	12.4	55.0	21.5
제주도	39.9	56.1	32.7	38.7	15.0
전국	46.6	48.9	26.1	48.7	15.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집합적 결과에 주목하면서 영·호남과 충청지역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달리 이 글의 논의는 유권자의 출신지에 주목하면서 수도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즉 이 글에서는 수도권에도 유권자의 출신지역에 따르는 투표행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투표행태가 그간의 대통령선거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그간에도 거주지보다 출신지를 중심으로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논의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출신지에 대한 분석결과와 거주지에 따르는 분석결과와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였다. 예컨대

이들 논의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정 지역 출신 유권자의 지지성향과 이의 변화를 밝혀내지 못했다. 최근의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출신지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미 언급했듯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출신지와 지지후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먼저 15~17대 대선의 수도권지역 구·시·군별 대선결과와 각 지역의 영·호남 출신비율의 상관관계를 집합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¹⁾ 이와 함께 집합자료에 기초한 분석결과가 갖는 한계를 고려하여 한국선거학회의 15~17대 대선 설문자료를 기초로 수도권지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미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선거에서 나타난 출신지와 후보지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각 선거자료를 통합한 자료(pooled data)를 기초로 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시기별 변화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한편 이 글의 분석이 이처럼 대선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앞서 언급한 17대 대선결과에 주목한다는 측면과 함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선과 선거구 단위가 다르고,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의 의미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이 글의 분석은 15~17대 대선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역시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전 선거는 관찰단위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흔히 논의되는 충청지역 출신 역시 분석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충청지역출신의 후보지지가 특정 후보로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1) 참고로 이 글의 분석에 이용된 집합자료는 서울 25개구, 경기 31개 시군구, 인천 10개 구시군 등 총 66개 시군구의 영호남출신비율과 각 지역 15~17대 대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다. 한편 이 글에서 이용한 출신지 자료는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 인구통계자료에는 출신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다소 문제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이 글에서는 2000년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이론적 논의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소위 ‘미시간 학파(Michigan School)’로 불리는 일단의 연구자들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심리적 당파성으로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함께 쟁점(issue)과 후보자(candidate)에 대한 태도를 꼽는다(Campbell et al. 1960). 또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서는 유권자는 어느 정당(후보자)이 자신에게 가장 많은 ‘혜택(benefit)’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며, 따라서 쟁점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입장을 표명하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Downs 1957; Enelow & Hinich 1984). 이와 달리 투표행태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sociological theory)’에 따르면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Lazarsfeld et al. 1944; Berelson et al. 1954). 이러한 ‘사회학적 이론’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유권자의 미시적 특성에 주목한다면, ‘균열이론(cleavage theory)’은 거시적인 사회적 갈등구조의 정치적 동원이라는 측면에 보다 주목한다. 이처럼 투표행태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은 강조점에서 다소간 차이점을 보임에도, 그간의 경험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이론들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데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출신지나 거주지에 따라 지지정당(후보)이 결정되는 지역주의 투표이다. 물론 지역주의 투표라는 용어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욱 2003). 혹자는 지역주의를 특정 지역에 대한 배타적 심리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지역감정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며(이남영 1999; 온만금 2000), 또 다른 혹자는 경제적 이해와 같은 지역적 이해에 집착하는 현상을 지칭하기도 한다(김욱 2004a; 강원택 2000; 조기숙 2000). 또한 지역주의는 투표행태와 같은 행태적 측면에서 거주지나 출신지에 기초한 투표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지역주의는 미시적 투표행태를 의미하는가 하면, 미시적 투표행태의 집단적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주의 투표라는 용어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용어가 적합한 사용이라고 단정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 지역주의 투표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나 특정 지역 출신 유권자가 지역정당이라 간주되는, 즉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 시점을 고려한 조작적인 의미에서 호남거주자나 호남지역 출신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영남거주자나 영남지역 출신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충청지역 거주자나 충청출신이 자유선진당을 지지하는 경우 지역주의 투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지역주의 투표가 의미하는 개념적 다의성과 무관하게 거주지나 출신지에 기초한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매우 방대하다. 실제 한국 선거에 관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제 유권자의 거주지나 출신지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최근의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관한 분석에서 출신지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출신지 요인이 투표행태에 중요하지 않다는 연구자들의 의도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높은 지지를 얻는 집합적 결과 때문에 거주지 요인에 연구자들이 보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투표가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들을 고려할 경우 지역주의 투표의 준거틀로 거주지를 고려하느냐 혹은 출신지를 고려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최근의 논의에 따르면 민주화 초기인 2000년대 이전의 지역주의 투표가 특정 정당지도자에 대한 충성심(royalty)에 기반하고 있다면, 2000년대 이후의 지역주의 투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royalty)의 발현 양상이라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역주의 투표는 지역적인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김욱 2004a; 2004b). 또한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을 계기로 지역주의 투표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지역주의 투표가 이념투표와 중첩성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문우진 2009; 조성대 2008; 최

준영 2008).

물론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와 관련된 이들 논의 역시 기본적으로 거주지를 지역주의 투표의 준거들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것은 지역주의 투표가 변화한다고 했을 때 출신지 요인이 함축하고 있는 바이다. 예컨대 지역주의 투표가 지역적인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출신지는 더 이상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의 투표와 관련한 수도권 투표행태의 변화는 매우 흥미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관한 경험분석은 매우 드물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5~17대 대선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분석해 볼 것이다.

III. 경험분석결과

1. 집합자료 분석결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는 각각 9,853,972명, 2,466,338명, 8,937,7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호남출신은 서울 17.0%(1,677,347명), 인천 12.3%(304,194명), 그리고 경기 13.1%(1,167,378명)를 차지하며, 영남출신은 각각 서울 11.9%(1,168,242명), 인천 8.1%(199,874명), 그리고 경기 9.8%(874,598명) 등이다. 수도권 전체를 볼 때 영남출신은 전체 21,258,062명 가운데 2,242,714명으로 10.5%, 호남출신은 3,148,919명으로 14.8%를 차지해, 영호남 출신이 전체의 25.4%에 해당한다. 수도권 지역 가운데 서울에 영호남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 지역에 걸쳐 호남출신이 영남출신에 비해 다소 많다.

〈표 2〉 수도권지역 영·호남출신 최고·최저 구·시·군 (2000년, %)

호남출신				영남출신			
다수지역		소수지역		다수지역		소수지역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관악	21.4	강화	3.5	강남	15.5	강화	3.2
금천	19.5	용진	5.0	서초	15.0	용진	5.2
동작	19.0	여주	5.1	과천	14.7	여주	5.2
강북	18.9	양평	6.0	송파	13.6	양평	5.6
성동	18.8	안성	6.1	광진	12.5	안성	5.6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3〉 수도권지역 구·시·군 기준 영·호남출신 비율(2000년, %)

	최소지역	최대지역	평균*	표준편차
영남출신	3.2	15.5	9.7	2.52
호남출신	3.5	21.4	13.5	4.05

* 평균은 수도권 전체인구대비 평균이 아니라, 구·시·군별 비율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구·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영·호남출신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영남출신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화군(3.2%)이었으며, 용진(5.2%), 여주(5.2%), 양평(5.6%), 안성(5.6%) 등도 영남출신의 비율이 낮았다. 이와 달리 강남구는 영남출신의 비율이 15.5%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15.0%), 과천(14.7%), 송파(13.6%), 광진(12.5%) 등도 영남출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호남출신의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최다 지역인 관악구(21.4%)를 포함하여 금천(19.5%), 동작(19.0%), 강북(18.9%), 성동(18.8%) 등이었으며, 거주비율이 낮은 지역은 강화(3.5%), 용진(5.0%), 여주(5.1%), 양평(6.0%), 안성(6.1%)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강화, 용진, 여주, 양평, 안성 등 서울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인천·경기의 외곽지역에 호남출신뿐만 아니라 영남출신의 비율

도 유사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영·호남출신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영남출신의 비율은 서울의 강남지역이 높은 반면, 호남출신은 이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고 저개발 상태인 관악, 금천, 동작 등에서 높다.

한편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구·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별 영남출신 비율의 평균은 9.7%, 그리고 호남출신 비율은 평균은 13.5%였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2.5%와 4.1%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남출신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지역별 편차 역시 호남출신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도권지역의 구·시·군별 선거결과를 민주당²⁾ 후보에 대한 지지

<표 4> 수도권지역 구·시·군 기준 김대중-노무현-정동영 후보 득표율

	최소지역	최대지역	평균*	표준편차
15대 김대중	21.3	51.4	39.5	6.65
16대 노무현	37.5	58.4	49.8	4.38
17대 정동영	14.7	29.5	23.5	3.24

* 평균은 수도권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구·시·군별 득표율의 평균임

<표 5> 수도권지역 김대중-노무현-정동영 후보 고득표와 저득표 구·시·군

다수 득표 선거구						소수 득표 선거구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정동영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정동영	
관악	51.4	관악	58.4	금천	29.5	용진	21.3	용진	37.5	강남	14.7
금천	49.4	강북	56.1	관악	29.1	강화	25.8	양평	38.6	서초	16.1
강북	48.7	안산	56.0	시흥	28.7	양평	26.0	강남	39.6	양평	16.4
성동	48.4	시흥	56.0	안산	28.4	가평	27.0	강화	39.8	강화	16.9
중구	48.0	금천	55.8	강북	28.2	여주	27.4	서초	41.3	이천	18.4

2) 여기에서는 15대 국민회의, 16대 민주당, 17대 대통합민주신당을 통칭하여 민주당으로 표현 하겠다.

을부터 살펴보면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듯 먼저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경우 관악구에서 51.4%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웅진군에서는 21.3%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으며, 구·시·군별 득표율 평균은 39.5%였다. 16대 대선에서 역시 노무현 후보는 관악구에서 58.4%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반면, 웅진군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다. 물론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은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에 비해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선거구 득표율 평균이 49.8%로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대 대선의 경우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은 이전 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는데, 최고득표율과 최소득표율을 보인 지역은 금천구(29.5%)와 강남구(14.7%)이다.

이러한 민주당 후보의 수도권지역 구·시·군별 선거결과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은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듯 먼저 15대 대선에서 17대 대선 사이에 민주당의 각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과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고득표를 한 지역은 관악, 금천, 강북, 성동, 중구 등인데, 이들 가운데 관악, 금천, 강북구는 16대 노무현 후보와 17대 정동영 후보가 역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높은 지지를 얻었던 안산, 시흥 지역 역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물론 김대중-노무현-정동영 후보의 소수 득표지역 역시 유사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표 5>에 제시된 김대중-노무현-정동영 후보의 고득표 지역과 저득표 지역을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호남출신 다수지역과 소수지역을 비교해 보면 이들 지역이 상당 정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호남출신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반대로 호남출신의 비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지지율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후보의 수도권지역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15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구·시·군 평균 37.5%를, 이어 16대 대선에서는 45.2%를 득표했으며, 16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52.8%의 지지를 얻었다(<표 6> 참고). 또한

〈표 6〉 수도권지역 구·시·군 기준 이회창-이회창-이명박 후보 득표율

	최소지역	최대지역	평균*	표준편차
15대 이회창	28.3	53.6	37.5	5.03
16대 이회창	37.2	58.1	45.2	4.37
17대 이명박	45.4	66.4	52.8	4.41

* 평균은 수도권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구·시·군별 득표율의 평균임

〈표 7〉 수도권지역 이회창-이회창-이명박 후보 다수·소수 득표 시·군·구

다수 득표 선거구						소수 득표 선거구					
15대 이회창		16대 이회창		17대 이명박		15대 이회창		16대 이회창		17대 이명박	
강남	53.6	웅진	58.1	강남	66.4	화성	28.3	관악	37.2	관악	45.4
서초	51.7	강남	57.5	서초	64.4	오산	28.8	안산	38.7	계양	45.8
과천	47.3	양평	56.3	양평	62.7	광주	29.2	포천	38.8	안산	45.8
웅진	44.7	서초	55.8	강화	60.5	여주	29.7	시흥	39.0	시흥	46.2
송파	44.4	강화	54.6	가평	58.9	안산	30.2	광명	39.7	광명	46.8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이회창 후보는 15대 대선에서 강남, 서초, 과천, 웅진, 송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화성, 오산, 광주, 여주, 안산 등에서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16대 대선에서 역시 이회창 후보는 웅진, 강남, 서초 등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저득표 지역은 16대 대선 당시와 달리 관악, 안산, 포천, 시흥, 광명 등이었다. 17대 대선의 경우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득표 지역과 저득표 지역은 16대 대선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명박 후보는 강남, 서초, 양평, 강화, 가평 등에서 높은 득표율을, 그리고 관악, 계양, 안산, 시흥, 광명 등에서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 후보의 15~17대 대선 수도권지역 선거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민주당 후보의 선거결과와 달리 15대와 16~17대 선거 사이에 다소간 단절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은 강남, 서초 등 영남출신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과 함께 영호남출신의 비율이 모두 낮은 웅진, 양평 등

지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15대를 제외하면 관악, 시흥, 안산 등 호남출신의 비율이 높고, 민주당 후보가 높은 지지를 얻은 지역에서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결국 지금까지 일부 시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나라당 후보 득표율의 경우 다소 명확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5~17대 대선 모두에서 호남출신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그리고 영남출신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높은 지지를 얻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과 〈표 9〉에서는 앞서 일부 구·시·군을 중심으로 살펴본 영호남출신 비율과 득표율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표 8〉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시·군별 15대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과 16대 노무현 후보

〈표 8〉 수도권지역 구·시·군별 김대중-노무현-정동영 후보 지지율과 호남출신 비율의 상관관계 (피어슨의 r)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정동영	호남출신 비
15대 김대중	-	.821**	.786**	.961**
16대 노무현	.821**	-	.932**	.760**
17대 정동영	.786**	.932**	-	.738**
호남출신 비	.961**	.760**	.738**	-

** p < .01

〈표 9〉 수도권지역 구·시·군별 이회창-이회창-이명박 후보 지지율과 영남출신 비율의 상관관계 (피어슨의 r)

	15대 이회창	16대 이회창	17대 이명박	영남출신 비
15대 이회창	-	.508**	.433**	.566**
16대 이회창	.508**	-	.788**	-.131
17대 이명박	.433**	.788**	-	-.022
영남출신 비	.566**	-.131	-.022	-

** p < .01

의 득표율의 상관관계가 .821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16대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과 17대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의 상관관계도 .932로 양 선거의 선거결과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는 득표율이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득표율이 높은 지역이 높고, 낮은 지역은 낮다는 의미이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구·시·군별 호남출신의 비율과 각 후보 득표율의 상관관계가 각각 15대 .961, 16대 .760, 17대 .738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과 상관관계의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호남출신의 비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만, 이러한 현상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시·군별 영남출신 비율과 한나라당 후보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5대 대선의 경우 상관계수가 .566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나라당 후보의 구·시·군별 득표율 역시 15대와 16대, 그리고 16대와 17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16대와 17대의 상관계수는 .78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여기에서 이어지는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구·시·군별 득표율의 상관관계는 민주당 후보 득표율의 상관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 득표율과 호남출신 비율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와 달리, 16~17대 한나라당 후보 득표율과 영남출신의 비율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앞서 살펴본 <표 7>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나라당 후보가 다수 득표를 한 지역은 영남출신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과 함께 영호남출신의 비율이 모두 낮은 지역이었다. 이는 물론 영남과 호남출신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로 상이하지만, 낮은 지역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구·시·군별 영남출신 비율과 호남출신 비율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과 호남출신 거주비율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표 10>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의 비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남 혹은 호남출신 비율과 후보지지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호남출신 비율과 민주당 후보 지

〈표 10〉 수도권지역 구·시·군별 후보 지지율과 영·호남출신 비율의 편상관관계

	15대 이회창	16대 이회창	17대 이명박
영남출신비율	.627**	.538**	.569**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정동영
호남출신비율	.925**	.816**	.880**

** p < .01

지율뿐만 아니라, 영남출신 비율과 민주당 후보 지지율 역시 명확하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남출신 비율과 한나라당 후보지지율의 편상관관계는 15대 .627, 16대 .538, 17대 .569등이며, 영남출신 비율과 한나라당 후보지지율의 편상관관계는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5대 .925, 16대 .816, 17대 .880 등이었다. 따라서 영호남출신 비율과 한나라당/민주당 후보지지율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호남출신 거주비율이 영남출신비율보다 득표율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지역에서 나타나는 시군구별 영호남출신 비율과 후보 지지율의 상관관계는 〈표 11〉과 〈표 12〉에 제시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 15~17대 선거 모두 영남출신 비율과 호남출신 비율은 각 후보의 득표율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특히 호남출신의 비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높아지고, 영남출신의 비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낮아진다. 또한 회귀계수(b)를 살펴볼 때 영남출신의 비율이

〈표 11〉 15~17대 대선 수도권 김대중-노무현-정동영 후보 구·시·군별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정동영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상수)	19.174	.000	41.887	.000	18.718	.000
영남출신	-.288	.048	-1.021	.000	-1.026	.000
호남출신	1.716	.000	1.320	.000	1.089	.000
R ²	.929		.711		.791	

** p < .01

〈표 12〉 15~17대 대선 수도권 이회창-이회창-이명박 후보 구·시·군별 득표율 회귀분석 결과

	15대 이회창		16대 이회창		17대 이명박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상수)	27.372	.000	48.952	.000	54.653	.000
영남출신	1.957	.000	1.276	.000	1.446	.000
호남출신	-.655	.001	-1.192	.000	-1.176	.000
R ²	.428		.487		.451	

높아질수록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5대보다 16대와 17대에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역시 〈표 12〉에 제시된 것처럼 영남출신의 거주비율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며, 이와 반대로 호남출신의 거주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2. 미시자료 분석결과

앞서 집합자료를 중심으로 수도권지역에서 나타나는 시·군·구별 영호남출신 비율과 후보 지지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영남출신의 비율이 높을수록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낮은 반면, 호남출신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와 반대로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은 낮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높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영남출신이 한나라당 후보를 더 지지하고, 호남출신이 민주당 후보를 더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영남출신의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영남출신 이외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선거학회의 15~17대 대선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수도권지역 유권자의 출신지역별 후보지지도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표 13〉에 제시되어 있듯 수도권 거주 호남출신 유권자가 민주당 후보인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79.7%,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94.7%. 그리고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49.0%인 반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5대

〈표 13〉 15~17대 대선 수도권지역 유권자의 출신지역별 후보지지도(%)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기타	전체
15대 대선	이회창	39.1	44.6	.0	61.3	58.0	35.8
	김대중	39.1	33.7	79.7	17.7	22.0	43.0
	기타	21.8	21.7	20.3	21.0	20.0	21.2
16대 대선	이회창	38.2	38.8	3.9	48.9	52.5	36.3
	노무현	56.9	56.7	94.7	47.8	45.0	59.8
	기타	4.9	4.5	1.3	3.3	2.5	3.9
17대 대선	이명박	59.8	61.8	35.3	73.8	54.8	59.0
	정동영	16.8	16.4	49.0	12.3	25.8	20.3
	기타	23.4	21.8	15.7	13.8	19.4	20.7

자료: 한국선거학회 15~17대 대선조사

대선의 경우 .0%, 16대 3.9%, 그리고 17대 35.3%로 나타난다. 호남출신은 민주당 후보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한 반면,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낮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거주 영남출신 유권자가 15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61.3%, 이어 16대 48.9%, 그리고 17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73.8%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영남출신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5대 17.7%, 16대 47.8%, 그리고 17대 12.3% 등이다. 호남출신과 대조적으로 영남출신은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한 반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낮다. 다만 16대 대선의 경우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이는 노무현 후보가 영남출신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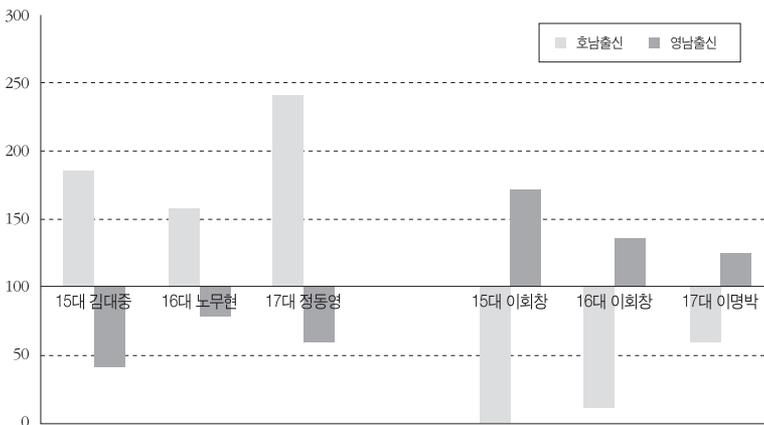
한편 수도권 유권자의 출신지역에 따르는 후보지지 경향에서 나타나는 선거 시기별 변화는 각 후보의 지지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표 13〉에서는 명확히 살펴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호남출신의 상대적 지지도를 살펴보았다. 〈그림 1〉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먼저 호남출신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상대적 지지도는 15대에서 16대 사이에 다소 감소하나, 17대 대선에서 매우 높아진다. 이와 달리 호남출신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상대적 지지도는 15대에서 16대, 그리고 16대에서 17대에 이르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첫째,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수도권 호남출신의 결집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둘째,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호남출신의 반감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셋째, 17대 대선의 경우 호남출신이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민주당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동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비율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남출신의 경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은 16대 대선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역시 노무현 후보가 영남출신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수도권 영남출신이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은 선거가 반복될수록 약화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다만 여기에는 출신지 효과 이외에 후보득표율의 지속적 상승 역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표 13>과 <그림 1>에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도권 유권자의 출신지와 후보지지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러한 관계는 선거시기마다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에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³⁾

<그림 1> 15-17대 대선 수도권지역 영·호남출신의 주요 후보 상대적 지지도



*상대적 지지도= (출신지지도/전체지지도)*100

자료: 한국선거학회 15~17대 대선조사

이에 따르면 먼저 선거해가 반복될수록, 즉 15대에서 16대 그리고 17대에 이를수록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거꾸로 한나라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확률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국적인 정당 후보 지지 경향에서 익히 알려진 것처럼 수도권지역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더라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주당보다 한나라당 후보를, 그리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나라당보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독립변수인 진보의 회귀계수(b) 값이 음의 값이며, 이것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에 거주하는 진보성향의 유권자는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에 비해 한나라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도 성향의 유권자 역시 진보 성향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보수성향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진보와 중도 독립변수의 b값이나 $\exp(b)$ 값을 비교해 볼 때 진보 성향보다는 약하다. 한편 <표 14>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선거시기와 진보 혹은 중도의 교차변수는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에 기초해 볼 때, 이념성향은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유사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출신지의 경우 우선 고향이 호남인 유권자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선거해와 고향이 호남이라는 교차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능성은 시기적으로 상이하다. 즉 15대 대선의 경우 호남출신이 민주당 후보가 아닌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할 확률은 거의 0 수준지만(실제 자료의 지지율이 0%이다), 선거가 반복될수록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물론 이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와 달리 <표 14>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선거해와 고향영남의 교차변수를 포함시킨 모델에서 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영남출신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상대적

3) 종속변수는 한나라당후보 지지를 1로, 민주당후보 지지 0으로 코딩했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이념성향은 기준변수가 보수, 고향은 영호남 이외 지역 출신이다.

〈표 14〉 15~17대 대선 종합자료 한나라당 후보지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유의확률	Exp(B)
상수	-7.206	1.451	.000	.001
선거해	.475	.092	.000	1.608
나이	.016	.005	.000	1.016
진보	-1.614	.161	.000	.199
중도	-1.003	.167	.000	.367
고향 호남	-37.408	9.820	.000	.000
고향 영남	.400	.1831	.029	1.492
선거해*고향 호남	2.122	.588	.000	8.350

-2 Log 우도 = 1362.516, 분류정확 = 71.9%

자료: 한국선거학회 15~17대 대선조사

지지는 15~17대 대선 사이에 변화하지 않았다는 알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17대 모든 선거에서 영남출신이 민주당 후보가 아닌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영남출신 유권자와 달리 호남출신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분석 자료에 있는 공통된 설문부의 부족으로 여기에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다음에 제시된 〈표 15〉와 〈표 16〉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먼저 〈표 15〉에 제시된 수도권 호남출신의 이념성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15대 대선 당시의 경우 호남출신 유권자 가운데 진보성향은 46%, 중도 22.1%, 그리고 보수성향은 31.9%를 차지하지만, 16대 대선 당시에는 각각 진보 54.1%, 중도 23.5%, 보수 22.4%

〈표 15〉 수도권지역 호남출신의 이념성향 변화

	15대 대선	16대 대선	17대 대선
진보	46.0	54.1	19.1
중도	22.1	23.5	50.0
보수	31.9	22.4	30.9

자료: 한국선거학회 15~17대 대선조사

〈표 16〉 15~17대 대선 당시 수도권지역 호남출신의 정부평가

	김영삼 정부(15대 대선)	김대중 정부(16대 대선)	노무현 정부(17대 대선)
잘함	3.3	44.2	22.6
보통	7.3	30.2	-
못함	89.4	25.6	77.4

*17대 대선 당시 설문에는 “보통”이라는 응답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자료: 한국선거학회 15~17대 대선조사

등으로 나타나, 진보층이 늘어난 반면 보수층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17대 대선 당시의 경우 진보 19.1%, 중도 50.0%, 보수 30.9% 등 이전 선거 시기에 비해 진보층이 크게 줄고 중도층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성향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한나라당 후보, 특히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호남출신 유권자의 지지도가 증가한 것은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6대 대선의 경우 진보층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념성향의 변화만으로 수도권 호남출신 유권자의 지지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표 16〉은 이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 16〉에 따르면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당시는 자민당)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수도권 거주 호남출신 유권자들은 89.4%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16대 대선 당시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는 긍정 44.2%, 부정 25.6%, 중립 30.2%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17대 대선에서는 다시 민주당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 77.4%, 긍정 22.6%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다. 17대 대선의 경우 “보통”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호남출신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약화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 강화는 이러한 정부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수도권 호남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IV. 글을 마치며

이 글에서는 15~17대 대선을 사례로 수도권 영호남출신의 대선후보 지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 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남출신의 거주비율이 높은 구·시·군, 예컨대 관악, 금천, 강북구 등의 경우 15~17대 대선 모두에서 일관되게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남출신의 거주비율이 높은 구·시·군, 특히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여기에서 영호남출신의 비율이 모두 낮은 지역의 경우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낮고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은 높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영호남출신의 거주비율과 후보득표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영호남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이 출신지역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영남출신 유권자는 한나라당 후보를, 호남출신 유권자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수도권 영남출신 유권자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15~17대 대선에서 다른 변수(나이나 이념성향)를 통제한 경우 일관성을 보이지만,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경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경향이 약화되고,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다.)

이러한 수도권 호남 유권자들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경향의 약화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경향 강화는 17대 대선의 경우 호남출신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지만, 15~17대 대선을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선거 이전 시기의 정부평가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념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수도권 호남출신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서 명확히 확인된다.

결국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번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수도권 후보 지지성향의 변화는 수도권 호남유권자의 지지성향의 변화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수도권 호남 유권자의 중도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6대 대선 당시 진보적 성향을 강하게 보였고, 노무현 후보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했던 수도권 호남출신 유권자들이 17대 대선에서는 진보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됨과 동시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할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이전 선거와는 상이하게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수도권 지역 영호남 출신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에 관한 이 글의 논의는 수도권 지역의 투표행태 변화와 관련한 최근의 몇 가지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예컨대 최근 논의에 따르면 흑자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욕망의 정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18대 총선과정에서 '뉴타운 개발' 등에 기초한 투표행태로 구체화되었다고 보며, 또 다른 흑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도권에서 계급투표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호기 2009).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 징후와 수도권 지역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는 이후 과제로 남겨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0.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4집.
- 김 욱. 2004a. “17대 총선과 충청권 정치지형의 변화: 지역주의의 약화 및 변화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7권 1호.
- _____. 2004b. “한국 지역주의의 지역별 특성과 변화 가능성: 대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14집 1호.
- 문우진. 2009.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한국정당학회보』 8권 1호.
- 온만금. 2000. “역대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성과 지역문화.” 『사회연구』 창간호.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 이남영. 1999. “유권자의 지역주의 성향과 투표.” 『한국의 선거 2』. 푸른길.
- 조기숙. 2000. 『지역주의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
- 조성대.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현대정치연구』 창간호.
- 최준영.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지역균열.” 『21세기 정치학회보』 18집 3호.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 William McPhee. 1954.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 Donald Stokes.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Row, Peterson.
- _____.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Sons.
- Converse, Philip E. 1969. “Of Time and Partisan Stabili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2.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Low.
- Enelow, James M., & Melvin J. Hinich. 1984.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zarsfeld, Paul F., Bernard R. Berelson, & Helen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Lipset, Seymour Martin, &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Seymour Martin Lipset & Stein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 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The Free Press.

[ABSTRACT]

Presidential Election and Regional Cleavage in Korea:

Focused on the 15~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Capital Area

Kim, Youngtae | Mokpo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a voter's native region on their candidate choice in the 15~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Capital area in Korea.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using the official statistics and survey data show that voters, who are residents of the Capital area, but natives of the Yeongnam or Honam region, support the candidate whose party has a strong base in the voter's native region. However, the pattern of regional cleavage in the Capital area is more or less different in the voter's native region: The native-region-based choice behavior of the natives of the Yeongnam region have persisted in all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but the native-region-based choice behavior of the natives of the Honam region has weakened considerably, especially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The change of the voting behavior of the natives of the Honam region has been caused by their ideological change, but first of all by their retrospective evaluation.

Key Words |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voting behavior, regional cleavage, capital area

